

S#2. 프롤로그 / 현수네 집_ 거실 + 현수방 + 민하네 골목 (낮)

인서트 도어락 번호 누르는 현수의 작은 손. 띠리릭 현관문 열리고.

오래된 20평대의 아파트지만, 깔끔하게 인테리어 된 거실로 현수가 들어선다.

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면, 방 벽시계 2시 15분 가리키고.

책상 앞 벽면에 다양한 오브제가 찍힌 사진들이 자연스럽게 붙여져 있는..

지이잉- 책상 위, 핸드폰과 휴대용 인화기 연결돼 있고, 개미 사진이 출력 중이다.

현수의 손, 무늬 테이프를 찢어 개미 사진을 벽에 붙이면..

그 위에 붙여진 어느 골목 사진 하나. 사진 속 골목, 일러스트 느낌으로 실사화되면,

현수가 그 골목을 걸어가고 있다. 그 위로 **2시 15분** 타이틀 떴다가 사라지면,

S#5. 현수네 집_ 현수방 (밤)

책상 위, 인화기에서 민들레 사진(S#3)이 출력되고 있다.

벽에 붙여지는 사진.

현수, 민들레 사진을 응시하는데..



Simple × Minimal

깔끔하고 매력적인 디자인
명확하고 미니멀한 버튼, 작고 가벼운 무게로
인테리어 소품처럼 두고 사용하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.



흡집에 강한
고품질의 외관과 질감

*약 **850g**

* 잉크 카세트 / 인화지 제외

